

# 사슴의 여름철 사육관리

성 유 석  
(본회 연구위원)

1. 여름철 사슴의 관리
2. 녹용의 자가절시 요령과 유의 사항
3. 여름철 질병과 진료방법

## 1. 여름철 사슴관리

### (1) 암사슴의 사육관리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사슴장에는 매우 분주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암사슴들은 새끼를 낳게 되는 6~7월경이면 영양관계를 잘못하므로 난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철에는 고단위 영양을 놓여주기 위하여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하여 주어야 하며 봄철에 들어서서는 고단백 사료는 줄여가며 난산 초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동을 자주 시켜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태아가 과태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만 순산을 가져올 수 있다. 좁은 우리안에서 사육되는 사슴의 경우 운동부족, 비만 증 등으로 말미암아 난산을 겪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 (2) 숫사슴의 사육관리

숫사슴의 경우 뿔(녹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뿔(녹용)을 자라기 시작하는데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체온의 상승은 태양의 빛이 강한 대낮에 절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서늘한 새벽이

나 저녁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또한 뿔(녹용)의 성장은 성 홀몬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성격의 변화가 있으니 그때 그때의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함이 매우 좋겠다고 보겠다. 3~5월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뿔이 떨어지고 겨울동안 난폭했던 자태는 낙각과 함께 매우 온순한 사슴이 된다. 이때부터 머리에는 혈액이 유통되는 아주 말랑말랑한 뿔이 자라게 되며 이때 자라기 시작한 60~90일 사이에 자라게 된 뿔이 녹용이 되며 자라때 나오는 많은 양의 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녹혈로 녹용과 함께 채취하게 된다. 이 시기에 암늪은 임신을 하게 되어 숫놈의 접근을 못하도록 차거나 물어 뜯어 숫놈의 신세가 매우 처량하게 보이기도 한다. 숫놈의 경우 이 기간동안 뿔이 상할세라 매우 조심하므로 소심한 동물의 자태를 보이게 되며 서서히 굳기 시작하여 9~10월이 되면 딱딱한 뿔로 변하여 자신의 무기로 삼아 암사슴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쟁탈전을 벌여 매우 난폭한 동물로 변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한마리의 숫놈이 거니릴 수 있는 암사슴의 마리수는 50여 마리 이상 가능하나 10~15마리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름에 배합사료를 많이 주어 사육된 숫사슴을 절각하기 위하여 운동을 많이 하여 절각하게 되면 대사성 질병으로 인한 심장장애로 쇼크사를 일으키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유하게 된다. 또한 우기의 절각은 질병을 일으키기 매우 쉬우므로 사육장 내의 청결과 또한 암늪의 경우 분만을 위해 더욱더 필요한 일이라 보겠다. 장마가 있는 여름철은 질병이 만연하기 쉬운 시기이며 사육장 내가 습하고 오염되기 쉬우며 특히 오물의 배출이 잘 안되어 악취가 나며 기생충 감염이나 세균감염 곰팡이의 번식이 잘 되므로 주기적으로 사육장내를 소독하고 파리, 진드기, 모기 등의 구충을 자주 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료의 부패가능성도 많아 장염 및 하리를 일으키는 수가 많으므로 이따금 예방약을 투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료통은 습기가 많아 곰팡이의 번식이 염려되므로 물로 깨끗이 닦고 햇볕에 자주 말려 사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또한 여름철 햇볕을 받은 풀은 항상 하루전에 베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퍼두었다가 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풀을 벤 즉시 급여하는 것은 급성 고창증을 유발 폐사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2. 녹용의 자가 절각시 요령과 유의사항

### 사슴뿔의 절각 요령

- ㄱ) 사슴은 항상 안전하게 안정시킬 것
- ㄴ) 절각을 위한 약품 기재등을 준비할것  
외과용, 수술톱, 지혈제, 탈지면, 붕대, 감자, 가위, 후처치를 위한 약품 기타
- ㄷ) 녹혈을 채취하되 가급적 녹혈은 동물의 건강을 고려 적은 양을 채취해야 한다.
- ㄹ) 사슴뿔은 각좌 부위로부터 2~3cm 위를 절단할 것
- ㅁ) 주의사항  
뿔을 자른 후 각좌 및 각저의 부위를 너무

꼭 잡아 혈액이 순환을 하지못하게 하여 조직이 괴사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하며 지혈을 하기위한 절단면에 밥풀을 이겨 부치거나 새끼를 녹끈으로 동여 매는 것은 매우 비위생적이므로 제 2 차적인 감염을 초래해서 패류를 만들기 쉽다. 절단면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않고 찬물을 붓는 것은 재래식 방법으로 물의 의한 일시적인 혈액응혈로 지혈 작용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오염된 수질의 의한 세균감염은 2차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3. 여름철 질병과 진료방법

### (1) 위생관리

사슴은 본래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동물로 질병이란 생각지도 안하던 동물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사슴수가 늘어나며 가축화 되어가며따라 또한 집단 사육에 의한 사육 방법으로 인한 제한된 활동 범주와 동물 서로간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인수 공통 전염병은 점차 공중보건상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사슴 사육의 있어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또한 크므로 질병과 예방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우리 수의 분야에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 발전에 위해 양육의 위생적 사양관리 질병의 발생과 조사연구 예방등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어 그 결과가 일선업무에 적용 되도록 해야겠다.

### (2) 사육의 대한 위생

밤과 낮의 기온의 차가 심할때는 낮에는 개방하여 한기가 잘되도록 하고 밤에는 문을 닫아 사육장(새끼를 위한)내의 실온을 높여주는 것도 매우 이상적이다. 환기나 하절기 장마철등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울때는 사육동물 점

반에 대한 예방약을 투약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며 주위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운동장의 흙을 바꾸어 주고 사육장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살포하여 청결히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사료통과 급수통을 수시로 깨끗이 청소하며 햇볕에 건조시켜주는 것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채별 혹은 종합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장내 기생충 구충을 하여준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 보겠다. 또한 약한 사슴이나 질병 증상을 나타낸 사슴이 있다면 즉시 격리하여 안정을 시켜주고 항상 면밀히 관찰하고 수의사의 대책에 따라 집중적인 치료를 하여 준다면 양면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겠다. 항상 여름철에 다발할 수 있는 오염된 망목장이나 목초는 크게 전염원이 될수 있으니 항상 유의 하여 처리 실시 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보겠다.

### (3) 여름철 질병의 조기진단

이는 꼭 여름철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므로 늘 이를 참고 삼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참고가되므로 이를 유의하며 질병의 발견이 매우 빨라질수가 있다.

- ① 되새김이 점차 완만하여진다.
- ② 거동이 느리다.
- ③ 좌우 복부가 팽대하다.
- ④ 눈에 힘이없고 이물질이 있다.
- ⑤ 피부가 거칠다.
- ⑥ 호흡이 거칠다.
- ⑦ 코끝의 윤기가 없다.
- ⑧ 콧물이 흐른다.
- ⑨ 침을 흘린다.
- ⑩ 기침을 한다.
- ⑪ 설사를 한다.
- ⑫ 오줌색이 붉다.

### ⑬ 식욕이 줄어있다.

위의 증세를 확인하여 알아보면 대증 요법에 의한 치료 처치 방법을 확인 매우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4) 여름철의 대표적 질병

#### ① 장염

원인: 부패사료나 사료를 갑자기 바꾸었을때 많은 양의 사료를 과식하였을때.

증상: 식욕이 떨어지며 설사가 심하다. 탈수로 인하여 피부가 거칠게 된다.

치료: 항생제 투약 설과제 주사 정장제 투약기생충검사 구충 실시

#### ② 새끼사슴처리

원인: 생후 15 ~ 20일 어린사슴다발 급작스러운 기온의 변화 부적합 사료급식 비타민의 결핍과 충분한 초유를 먹지 못하였을 경우

증상: 흰색의 하리변과 통증을 느낀다. 합병증으로 폐염동반 허탈상태가 심하면 24 ~ 72 시간내 폐사하게 된다.

치료: 환경을 깨끗이 하여 주어야 하며 보온을 하여 줄 것, 심한 하리에는 수분을 공급하여 줄 것, 항생제 설과제의 사용은 좋다.

#### ③ 난산

원인: 자궁내의 지방 축적과 태아의 과태 자궁의 이상발육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일때

증상: 호흡곤란이 있으며 통증이 매우 심한 불안과 침울하여 신경이 과민하여진다. 새끼를 분만치 못하여 자주 앉게되며 잘못하여 어미 새끼 모두 폐사하게 된다.

치료: 전문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유도분만 내지 제왕절개 수술로 치료해야 함.

#### ④ 자궁내막염

원인: 분만후 혹은 난산에 의해 산도를 통해 세균감염이 원인이됨.

증상: 외음부로 누런 화농성 분비물이 나오

며 식욕부진과 피모가 거칠게 된다.

치료: 자궁세척과 항생제 사용

⑤ 자궁탈 혹은 질탈

원인: 난산으로 인하여

증상: 외음부에 질이나 자궁이 빠져 나와 매달려 있으므로 점막에 상처가 생겨 출혈되거나 오염이 된다.

치료: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땅에 다아 흙과 모래 등으로 자궁조직이 상해서 출혈이 되면 폐사할 수 있으므로 전문 수의사의 치료를 받아 외과적 처치를 병행 실시 하여야 한다.

⑥ 피부염 원인: 약한 피부에 세균이 감염되었을때 광물질 혹은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영양장애 근친 번식으로 인한 유전적요인 체내 홀몬의 불균형으로

증상: 탈모현상이 나타나며 피모가 거칠고 윤기가 없으며 검게 변한다. 심하면 전체 피부에 움기게되며 심한 악취가 난다.

치료: 기생충 검사후 구충 실시 영양사료 및 첨가제투약 장기적인치료 피부보호제 및 사육장내의 청결 소독 실시

⑦ 골수염

원인: 비위생적으로 뿔을 절각하였을 경우

증상: 식욕부진 활동상태불량 선화운동 비점막의 건조

치료: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외과적 처치를 한후 고단위 항생제투약

⑧ 기타질병: 골절 부제병등이 있다.

끝으로 점차 증가하는 사슴두수와 사슴농장의 병행은 계속될 것이며 또한 녹용의 절각을 위한 시술 및 치료위한 진료행위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 또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전문적인 진료행위와 내용은 물론 치료 및 마취약 약품의 남용은 사슴 개

체별 치료 회복에 극심한 피해를 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피해 매우 크다고 보겠다.

우리 서로의 아낌없는 지도와 자신의 직분에 맞추어 양록분야에 진취적인 발전있기를 기원하며 펜을 놓겠습니다. \* (야생동물병원장)

서울·江東區 明逸洞 三二一—四二二 電話: (自) 四七一一—二一四二八 (事) 四八六一—三二四二八	院長 成 裕 錫	本會委屬 <b>野 生 動 物 病 院</b>
서울·恩平區 大養洞 二二〇—三三三 電話: (自) 三五五—四三〇一 (事) 三五三—六一〇六	院長 金 璨 圭	本會委屬 <b>韓 國 野 生 動 物 病 院</b>